

트라이젬은 자기실현의 장입니다.

문관식

(주)삼보컴퓨터 기술기획 대리



〈문관식 대리 프로필〉

생년월일 : '61. 5. 26

현 주소 : 서울 성동구
중곡동

키·몸무게 : 165cm, 58kg

별명 : ?

취미 : 바둑, 볼링

가족사항 : 3남3녀 중 막내

자타가 공인하는 매력 :

매력없는 것이 매력

하루중 가장 힘든 시간은 :

식사 후

하루 용돈 : 7,000원

주량 : 소주 1병

어릴때의 꿈 : 과학자

결혼의 정의 :

항상 함께 있는 것

가장 외롭다고 느껴질때는 :

서로의 소외감을 느낄때

요즈음의 최대 고민은 ?

올해의 목표 :

외국어 능력 배양

정보화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통신의 선두주자임을 자부하는 (주)삼보컴퓨터. 본지에서는 정보화라는 소망을 가지고 전자25시로 뛰고 있는 삼보컴퓨터의 기술기획팀 문관식 대리를 만나 보았다.

“현대는 그 변화가 아주 빠르고 빠른 변화에 대한 정보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도 실패없이 변화하는 새로운 정보들로 가득찬 이 사회에서 말과 글 또는 각종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려 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컴퓨터라며 사용자들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트라이젼은 많은 정보를 보다 빨리 정리, 분류, 종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며 삼보컴퓨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문대리는 직업에 대한 의미를 자기실현의 큰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며 “도전하지 않고 비현실적, 비과학적인 꿈만 꾸어서는 안되며 업무에서부터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며 업무에 대한 자세를 정의내리기도 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현실적인 꿈이 많아 직장업무에 개

을리 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정인데 문대리는 확실한 신념의 눈빛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또한 그는 사람에 따라 인생의 목적은 **富**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업무 자체에 의미를 보람으로 삼고 그 보람속에서 자기실현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

특히 삼보컴퓨터를 평생직장으로 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축학을 전공해서 나에게 컴퓨터와는 관련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쉬운데, 대학 시절 정보사회에 대한 인식을 나름대로 갖고...”라며 컴퓨터와 인연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현재 맡고 있는 일은 중장기제품 생산계획이라든지, 마케팅연구, 국제계약 및 대외창구역할 업무인 연구조합, 진흥회 등과의 관련업무를 맡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자진흥회의 특허실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지적 소유권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수립하고 대처하는 일” 등이라며 자세히 註(?)를 달아 주기도 했다.

그는 4년동안 기술기획팀에서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추진력에 주위 동료들은 감탄한다며 자기 P R도 잊지 않았다.

또한 다른 직장과 다를 일이 없지만 아침에 「10분회의」를 통해서 전반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결론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뿐이라고 한다.

문대리는 '88년도에 결혼해서 부인 장미화씨와 3살난 주연양과 함께 단란한 보금자리를 꾸며 살고 있는데, 주연이의 재롱을 보면 하루생활의 피로는 씻은듯이 가신다고 한다.

평소생활을 옴토마이스(최적화)적으로 불필요한 군더더기 일은 절대 안하고 여유와 합리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한다.

직장에서도 내일이면 수안보에서 있을 전 직원들과의 워크숍이 반영해 주듯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우리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며 동료들과도 허물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자기를 뒤돌아 보는 시간은 누구나 다 있지만, 책을 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책을 보는 편이라고 한다.

특히 우리 전무님께서 좋은 책들을 소개해 주셔서 그중 골라서 보고 있다며 사내의 학구적인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었다.

“올한해는 몸담고 있는 계약관리팀, 기술기획팀을 잘 조화시켜서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건설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부서의 엘리트화를 리드하고 있는 문대리의 눈초리와 여유만만한 웃음, 자심감 넘치는 어투에서 삼보컴퓨터의 앞날과 그의 내일을 가늠할 수 있었다.